

사실

본 유료 공개논평의 목적은 역사적 사실을 게재하기 위함이다.

4월 말 워싱턴 포스트지에 “위안부의 진실”을 말한다고 주장하는 광고가 게재되었다. 그러나, 이 광고가 주장하는 바는 전혀 “진실”과는 다르다. “사실”에 기초하기 보다는 “신념”의 산물로 보였다. 일본국민들은 미국에 대해 같은 민주주의 국가이자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서 높이 존중한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언론, 사고, 학술연구 및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개별 국민들이 적합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람들은 오류, 왜곡, 편견, 사실적 오류 보다는 정확한 사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본 공개논평은 현재까지 적절히 공개되지 않았던 “위안부”에 대한 몇 가지 역사적 사실에 대해 공개하여 이 존경 받는 신문을 읽는 독자들이 자체적으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고나 한다.

사실 1

일본군에 의해 여성들이 자의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매춘에 처해졌음을 증명하는 역사적 문서가 역사 기구나 연구단체에 의해 밝혀진 바가 전혀 없다. 전시 정부와 군 지도자들의 명령을 보관하는 일본 아시아 역사자료센터의 자료를 조사해도 여성들이 강제적으로 “위안부”로 일하기 위해 징집되었음을 시사하는 내용은 없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많은 문서에서 사설로 활동하는 브로커들에게 여성들을 의지와 상관 없이 일하도록 강제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많은 문서들이 발견되었다.

1938년 3월 4일 작성된 군 문서 2197호는 일본군의 이름을 잘못되게 사용하거나 납치로 인정될 수 있는 징집 방법을 금지하며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자를 처벌할 것임을 경고하는 내용을 명확히 담고 있다. 1938년 2월 18일 작성된 내무부 지령(제77호)에 따르면 “위안부” 징집은 국제법을 준수하여 진행되어야 하고 여성의 노예화나 납치를 금하고 있다.

더욱, 같은 해 11월 8일 작성된 지령(제136호)는 21세 이상으로 과거에 전문적으로 매춘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여성들만 “위안부”로 징집될 수 있다고 언급한다.

“위안부”의 숫자가 200,000명에 달했다고 주장하는 한 역사학자는—미국 언론에서 자주 인용되는 주장이다—이와는 다르게 본 문서가 군의 적극적인 개입을 증명한다고 믿는다.

사실 2

더욱이 이러한 지령을 충실히 준수했음을 나타내는 많은 신문 기사들을 찾아볼 수 있다. 한국에서 발간된 1939년 8월 21일자 동아일보는 자의에 반하여 여성들을 위안부로 강제 동원한 브로커가 당시 일본 관할에 있던 현지 경찰에 의해 처벌될 것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이

는 일본 정부가 여성을 상대로 한 비인도적 범죄에 대해 심각하게 다루었음을 증명한다.

악덕 소개업자가 발호

농촌 부녀자를 유괴

피해여성이 100명을 돌파

부산의 형사, 심양(중국)에 급행

부산 - 악덕 소개업자들이 가난한 가정의 여성들을 만주지방에서 상당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유혹해 납치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만주 지방에서는 일본 군인들이 때를 지어 매 음굴을 방문한다고 알려져 있다) 45명의 악덕 브로커가 부산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부산에서 의심하지 않는 순진한 젊은 여성들을 현혹시켜 만주에서 매춘 하도록 팔아넘겼다. 100명이 넘는 여성들이 이미 피해를 당했다. 부산경찰이 진행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러한 범죄활동에 참가한 6명의 심양 출신 딜러의 신원을 확인하였고 8월 20일 저녁 이들을 구속하기 위해 심양으로 6명의 형사를 급파했다. 구속을 통해 이러한 브로커들의 끔찍한 만행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3

그러나 네덜란드령 동인도제도 (현재의 인도네시아) 세마랑섬에서 분명히 군기의 해이가 발생했다. 일례로 한 부대의 군인들이 일련의 네덜란드 여성들을 강제로 징집해서 “위안소”에서 일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위안소는 이 사건이 알려지자 군 명령으로 폐쇄되었고 관련 장교들은 처벌되었다. 이 사건 및 다른 전쟁범죄에 가담한 자 들은 이후 네덜란드 법정에서 재판에 처해져 사형을 포함한 중형에 처해졌다.

사실 4

일본이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잘못된 처우를 비난하는 미하원 마이크 혼다 의안이 발의한 121결의안 및 다른 주장은 대부분 과거 위안부 여성들의 증언에 의한 것이다. 이들의 최초 증언에서 군대나 다른 일본의 정부 부문에 의해 강요되었음을 시사하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의 증언은 반일 운동이 시작된 이후 급격히 변경되었다. 미 하원 청문회에서 증언한 사람들은 처음 자신들이 브로커에 의해 데려가 졌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이들을 납치한 자가 “경찰 제복처럼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실 5

일본군에 소속되어 있던 위안부들은 주로 보도되는 것처럼 “성노예”가 아니었다.

이들은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관행이었던 대로 매춘 허가 체제 하에서 일했다. 사실 이들 여성 중 많은 경우가 현장 지휘관이나 심지어는 장군에게 지급되는 것보다 더 많은 보수를

별기도 했으며 (미국 전쟁정보국, 미육군 소속 심리전 팀, 인도 버마 전장, APO 689), 이들이 좋은 처우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증언도 많다.

여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받은 군인에 대한 기록이 있다. 많은 국가에서는 사실 군대를 위해 매음굴을 세워 군인들이 민간인을 강간하지 못하도록 했다. (일례로 1945년 미 점령군은 미국 군인들에 의한 강간을 방지하기 위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위안소” 설치를 일본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슬프게도 2차 대전 중 많은 여성들이 극심한 고난을 당했으며, 이러한 역사적인 비극적 현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동시에 일본군이 “젊은 여성들을 성노예로 내모는 20세기 최대 인신매매사건 중의 하나를 저질렀다는” 하원결의안은 중대하고 고의적인 사실왜곡이라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결국 역사학자 하타 이쿠히토의 연구 논문에도 기술되었듯이 약 20,000명에 달하는 전시 위안부 중 2/5 가량이 일본 여성이었다.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미국 대중들에게 사실을 알리는 데에 관심이 있다. 실지로 발생한 사건에 대한 비판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근거 없는 비방과 중상모략에 대한 사죄는 대중들에게 역사적 진실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줄 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간 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해 정확한 인지를 공유하기 위해 사실만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를 바란다.

조직적이거나 강압적인 징집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문서: 위안부와 일본군에 대한 오해 (Misconceptions about comfort women and the Japanese military)

찬성자

일본 국회의원

자민당

아카이케 마사아키, 이나다 토모미, 에토 다쿠, 오츠카 다카시, 오카베 히데아키, 오가와 유이치, 가기타 시유베, 가메오카 요시타미, 기히라 미노루, 고비키 츠카사, 사카이 마나부, 시마무라 요시노부, 스기타 모토시, 스즈키 케이스케, 소노우라 겐타로, 타이라 마라아키, 토이다 도오루, 도이 도오루, 도이 마사키, 니시모토 가츠코, 하야시 준, 후루가와 요시히사, 마츠모토 후미아키, 마츠모토 료헤이, 무토 유지, 아이치 가츠오, 야마모토 토모히로, 와타나베 아츠시, 나가가와 요시오

민주당

마츠키 겐토, 류 히로부미, 마키 요시오, 요시다 이주미, 가와무라 다카시, 이시즈키 다카시, 이주미 겐타, 진푸 히데오, 타무라 겐지, 와시오 이치로, 기타가미 게이루, 마츠바라 진, 마츠시타 신페이

무소속

니시무라 신고, 히라누마 타케오

교수, 정치논평가, 언론인

교수: 후쿠다 하야루, 엔도 고이치, 미야자키 마사히로, 히가시나가노 슈도, 아라키 가즈히로, 시마다 유이치, 니시오카 츠토무, 후지오카 노부가츠

정치논평가: 가세 히데아키, 니시오 간지, 도미오카 구이지로, 오카자키 히사히로

언론인: 아오야마 시게하루, 모테기 히로미치

이하 서명한 역사적 사실 위원회 회원들은 상기 공개논평을 지지한다.

야야마 타로 (정치 논평가), 사쿠라이 요시이코 (언론인), 하나오카 노부아키 (정치논평가), 스기야마 고이치 (음악가), 니시무라 고오유 (언론인)

이토피아 미나미아자부 603 16-8, 미나미아자부 3-층, 미나토구, 도쿄, 106-0047 일본